

융복합시대 중년기성인의 내외통제성이 생활만족도 및 노후준비에 미치는 영향

이희연*, 전해성**

서울사이버대학교 사회복지학부*, 단국대학교 행정법무대학원**

The influence of the locus of control of middle aged on life satisfaction and preparation for old age among in the times of convergence

Hee-Youn Lee *, Hye-Seong Jeon **

Dept. of Social Work, Seoul Cyber University*

Dept. of Graduate School of Legal Studies and Public Administration, Dankook University**

요 약 본 연구는 초고령 사회로의 진입이 예고된 가운데 다양한 심리적, 경제적인 난제로 위협을 받고 있는 융복합시대 중년기 성인들이, 어떻게 내적 또는 외적통제성을 발휘하여 생활만족도라는 현실의 인지정서적 균형과 노후준비라는 발달과업을 수행하고 있는가를 파악하고자 하였다. 이에 중년기 성인의 내외통제성을 독립변인으로, 생활만족도 및 노후준비를 종속변인으로 설정하여 검증하였고, 최종적으로 284부의 설문이 결과분석에 사용되었다. 연구결과, 중년기의 내외통제성이 생활만족을 높이고, 실제적인 노후준비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또한 생활만족과 노후준비 간에도 서로 상관관계를 나타냈다. 이에, 내외통제성과 같은 인간의 심리적 내적자원이 개인의 현실적 삶의 만족과 노후준비와 같은 발달과업에 긍정적인 영향요인임을 확인하였다.

주제어 : 중년기 성인, 내외통제성, 생활만족도, 노후준비, 디지털대학, 고령사회, 융복합시대

Abstract This paper was to explore the effect of the locus of control on life satisfaction and preparation for old age among middle-aged adults in the time of Convergence. This survey was conducted from September to December 2013, and 284responses were used for the analysis. The data was analyzed by descriptive statistics, Pearson Correlation and Multiple Regression. The research findings could be summarized as the followings. First, the locus of control had significantly positive effect on life satisfaction, Second, the locus of control also had significant effect on preparation for old age among middle-aged adults. Third, life satisfaction between preparation for old age had positive correlations with life satisfaction.

Key Words : Middle-Aged, Locus of control, Life satisfaction, Preparation for old age, Digital university, aging society, Convergence

Received 29 August 2015, Revised 13 October 2015

Accepted 20 November 2015

Corresponding Author: Hye Seong Jeon(Dept. of Graduate School of Legal Studies and Public Administration, Dankook University)

Email: hsjeon@dankook.ac.kr

ISSN: 1738-1916

© The Society of Digital Policy & Management. All rights reserved. This is an open-access article distributed under the terms of the Creative Commons Attribution Non-Commercial License (<http://creativecommons.org/licenses/by-nc/3.0>), which permits unrestricted non-commercial use, distribution, and reproduction in any medium, provided the original work is properly cited.

1. 서론

오늘날 중년기 성인의 삶은 결코 녹록치 않다. 초고령 사회를 앞두고 있으나 여전히 사회복지제도는 미흡한 현실에서 중년기 성인들은 노부모에 대해서는 가족부조 가치기반의 이타적 부양을, 자기 노후에 대해서는 독립적 가치기반의 자립적 자가부양이라는 상반된 가치를 요구받으면서[1], 노부모 부양과 자기노후준비라는 과제를 동시에 책임져야하는 모순적인 이중부담을 안고 있다. 이와 더불어 장기화되는 청년실업 문제로 성인자녀의 부양 문제까지 가중되는 상황에 놓여 다중고(多重苦) 문제를 겪고 있는데, 이는 중년기 성인들의 불안과 우울문제를 야기하고 삶의 질을 위협하는 등 심각한 사회문제로 부각되고 있다[2, 3].

그렇다면, 이와 같은 다중고(多重苦)의 현실적 난제 속에서 중년기 성인은 어떻게 현재 생활의 만족을 유지하고 있으며, 노후준비 수준은 실제로 어떠한가에 대한 의문이 제기된다. 여기서 생활만족이란 현재까지 살아온 인생에 대해 책임을 느끼고 의미 있는 것으로 간주하며 긍정적 자아개념을 가지고 현재의 일상생활을 즐겁게 유지하는 것으로[4], 한 개인이 자신의 삶의 과정을 통해 지속적으로 건강하고 융통성 있게 적응해가는 능력을 포함하는 개념이다. 즉, 심리적, 신체적, 환경적 조건 속에서의 기대와 현실적인 충족간의 합치에서 오는 주관적인 만족감을 포함한 삶의 다양한 측면에 대한 주관적 평가로서[5], 자신의 과거, 현재의 생활에 대한 전반적인 평가를 포함한 복합적인 감정의 표현이며[6], 자신의 삶에 대한 적응능력이라고 할 수 있다. 그리고 노후준비란 자신의 복지에 중요한 의미를 부여하고, 노후에 자원의 소비가 요구되는 상황에 처하게 될 때 개인이 문제해결의 능력을 예비하는 것 이라고 할 수 있다. 즉, 자신의 노후를 위해 경제적, 신체적, 정서적으로 대비하는 것으로[7], 노후에 필요한 자원들을 마련하고 성공적인 노후생활을 유지하기 위한 과정 및 계획이라고 정의할 수 있다[8].

중년기 성인이 복합적이고 과중한 현실적 상황을 효과적으로 관리하고 궁극적인 생활 적응과 현실의 만족을 영위하며, 실제적으로 개인의 노후를 준비해가기 위해서는, 개인의 심리사회적 대처기제가 필요하다. 사실 개인에게 있어서 외적 자원과 문제해결기제가 제한되어 있을 때는 내적 대처기제의 활성화가 더욱 요구된다. 내적 대

처기제 중에서 문제를 해석하고 문제 상황을 통제해가는 심리사회적 기제인 개인의 내외통제성은 개인의 상황에 대처하고 적응하는 중요한 심리기제로서, 자신의 행동에 따른 강화 간의 인과적 관계를 어떻게 인식하는가에 따라 인간의 활동 및 행동이 달라진다고 강조하고 있다[9,10]. 여기서 내외통제란 자신의 생활이나 사건의 원인을 자신의 행동(내적 통제) 또는 조절할 수 없는 외부적인 힘(외적통제)에 의한 것으로 지각하는 것을 말한다. 기존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내적통제자가 외적통제자에 비해 더 높은 성취동기를 갖고[11], 더 적극적으로 활동하며, 더 건설적으로 반응하고, 어려운 문제를 극복하는 성향이 높다고 보고되고 있다[12,13]. 즉, 내통제성격일수록 사회활동에 더 적극적이고, 자신의 욕구를 지연시켜서라도 더 가치있는 보상을 선택하는 경우가 높으며, 문제해결력이 높다는 연구결과가 지배적이다[14]. Nowick and Brissett(1977)는 내통제성격자가 외통제성격자보다 욕구좌절 상황에서 의사결정에 더 신중하고 더 많은 시간을 보내기는 하지만 보다 건설적으로 반응하고 어려움을 극복하려는 높은 경향성을 보인다고 하였다[15]. 자아강도에 있어서도 내적통제성격자가 외적통제성격자보다 높은 수준을 보이고, 욕구를 지연시킬 능력이 있는 것으로 제시되고 있다[16].

이러한 내외통제성에 대한 선행연구들은 교육학, 사회학, 사회복지학, 심리학 및 경영학의 인적자원개발 분야 등 다양한 학문분야에서 연구되었다[17,18,19]. 그러나 지금과 같이 초고령 사회로의 진입을 앞두고 있는 융복합 시대에, 자기 노후준비와 더불어 노부모의 부양부담까지 감당해야하는 중년기 성인의 다중고 문제를 내외통제성과 관련하여 다룬 연구는 거의 없다[20,21].

앞서 살펴본 것처럼, 개인이 어떤 통제신념을 갖느냐에 따라 그 사람의 성격이나 인생관, 또는 생애과정이나 성취에 대한 태도와 노력 등이 달라지므로, 내외통제성은 인간의 행동과 연관시켜 볼 때 매우 중요한 정의적 개념이라 볼 수 있으며, 이러한 통제소재에 따라 같은 조건에서도 생활만족도 및 미래준비에 있어서 차이를 보이게 된다고 할 수 있다. 이에 본 연구는 중년기 성인이 노후준비라는 과중한 발달과업 속에서, 어떻게 현재 생활의 만족을 유지하며 노후준비를 할 것인가에 대한 문제를 내외통제성의 관점에서 다루고자 하였다. 이를 통해 본 연구는 중년기 성인의 생활만족이라는 현실에 대한 인지

정서적 평가와, 노후준비라는 발달과업에 대한 과업수행적 평가에 대한 이해를 제공하고자 하였다. 더불어 고령화가 유발하는 외적자원 부족의 현실 속에서 개인이 어떻게 자신의 내적인 자원과 기제를 활성화시켜 자신의 심리사회적 불안을 관리하고 효율적인 발달과제 수행을 통제해 갈 수 있는지 구체적인 방법을 규명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목적을 위한 연구 질문은 다음과 같다.

- 연구질문 1. 중년기 성인의 내외통제성, 생활만족도 및 노후준비의 수준은 어떠한가?
 연구질문 2. 중년기 성인의 내외통제성이 생활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은 어떠한가?
 연구질문 3. 중년기 성인의 내외통제성이 노후준비에 미치는 영향은 어떠한가?

2. 연구방법

2.1 조사대상 및 자료수집방법

본 연구는 일반대학원 대학원생과 온라인대학교 재학생들 중 중년기에 해당하는 대상자들을 중심으로 실시되었다. 일반적으로 중년기를 35세 이후 또는 40세부터 60세까지로 정하기도 하는데[22], 본 연구에서는 30대 후반, 즉 청년기에서 중년기로 막 들어서는 경계선적인 특성을 갖는 35세 이후부터 시작하여 30대 후반, 40대, 50대를 중년기로 규정하였다. 이는 30대 후반의 청년기와 중년기의 경계선적 중년기와 40대에 들어선 중년기를 비교하면서 좀 더 중년기의 특성을 명확히 파악하고자 함이다. 연구대상자들에게 서면으로 조사의 목적 및 내용, 연구윤리 등에 관한 설명과 조사협조를 요청한 후, 이에 자발적으로 동의한 학생들이 조사에 응하는 방식으로 진행되었다. 본 조사는 2013년 9월부터 12월까지 실시되었으며, 이메일을 통해 총 295부가 수집되었다. 최종적으로 수집된 설문지 중 불성실하게 응답한 설문지를 제외한 총 284부가 결과분석에 사용되었다.

2.2 측정도구

2.2.1 내외통제성 척도

본 연구에서의 내외통제성 척도는 1966년 Rotter가 제

작한 Internal-External Scale을 지연경·조병원(1991)이 수정보완한 것을 사용하였다[23]. 이 척도는 총 15개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각 문항에는 내적통제 문항과 외적통제 문항이 한쌍으로 이루어져 있어서, 둘 중 하나를 선택하게 되어 있다. 이때 내적 통제 문항에 표시했을 때 1점씩 가산하여, 0점(가장 외적통제)에서 15점(가장 내적통제)의 점수분포를 나타내게 된다. KR-20계수로 측정된 신뢰도는 Cronbach's $\alpha = .76$ 이다.

2.2.2 생활만족도 척도

생활만족도 측정에는 윤진(1982)의 생활만족도 척도를 사용하였다[24]. 이 척도는 자신의 노후생활만족도를 예측하여 기록하게 한 것으로, 감정부문의 8개 문항(긍정적 부문 4개, 부정적 부문 4개), 생활경험부문의 12개 문항(긍정적 부문 6개, 부정적 부문 6개) 등 총 20개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그리고 3점의 Likert형 척도로 점수가 높을수록 자신의 노후생활만족도가 높을 것으로 기대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고, Cronbach's $\alpha = .92$ 이었다.

2.2.3 노후준비 척도

본 연구에서 노후준비란 조사대상자가 자신의 노후생활을 위해 준비하고 있는 정도를 의미한다. 이를 살펴보기 위해 배계희(1981)의 노후준비문항을 기초로 김성숙(2006)이 재구성한 노후생활계획 척도를 사용하였다[25]. 이 척도는 신체적 준비 6문항, 정서적 준비 8문항, 경제적 준비 5문항 등 총 19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5점의 Likert 척도가 사용되었고, 점수가 높을수록 노후에 대한 준비 정도가 높음을 의미한다. 김성숙(2006)의 연구에서 각 영역별 신뢰도는 Cronbach's $\alpha = .693 \sim .824$ 로 보고되었으며, 본 연구에서 전체 문항의 신뢰도 계수는 Cronbach's $\alpha = .88$ 이었다.

2.2.3 인구사회학적 변인

본 연구는 조사응답자의 생활만족도 및 노후준비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요인의 영향력을 보다 명확히 검증하기 위해 통제변인으로 인구사회학적 변인을 설정하였다. 인구사회학적 변인으로는 선행연구를 통해 보고된 연령, 성별, 결혼상태, 종교, 학력, 월가구 소득을 설정하여 모형에 투입하였다.

2.3 자료분석방법

본 연구에서는 성인남녀의 생활만족도 및 노후준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살펴보기 위해 수집된 자료를 SPSS 18.0을 사용하여 분석하였다. 먼저 연구모형에 투입된 변수들의 내적일관성을 확인하기 위해 신뢰도 계수를 산출하였으며, 둘째로 연구대상자의 인구사회학 적 특성과 주요 변수들의 기술통계를 실시하였다. 셋째, 모형에 포함된 변수들의 상관관계를 검증하여 다중공선성 여부를 검토하였다. 마지막으로 조사대상자의 내외통제 성과 생활만족도 및 노후준비 간의 인과관계를 파악하기 위해 중다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3. 연구결과

본 연구는 중년기 성인들을 대상으로 내외통제성이 생활만족도 및 노후준비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하였다. 이에 따른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3.1 조사대상자의 인구사회학적 특성

본 연구에서는 인구사회학적 특성 중 연령, 성별, 결혼 상태, 종교, 학력, 월가수 소득 등을 중심 파악하였으며, 이를 <Table 1>에 제시하였다.

<Table 1> Socio-demographic Characteristics

| | classification | frequency (%) | | classification | frequency (%) |
|---------------|---------------------|---------------|----------------|-------------------|---------------|
| age | 30 | 56(19.6) | religion | Protestants | 97(34.6) |
| | 40 | 145(51.2) | | Catholics | 39(13.9) |
| | 50 | 84(29.4) | | Buddhists | 54(19.3) |
| | | | | No religion | 82(29.3) |
| | | | | Etc. | 8(2.8) |
| missing | 5 | missing | 5 | | |
| sex | male | 115(40.6) | education | high School | 106(37.2) |
| | female | 168(59.4) | | College | 142(50) |
| | | | | Graduate school | 12(4.2) |
| | missing | 2 | | Etc. | 24(8.5) |
| marital state | married | 215(80.5) | monthly income | ~1million won | 12(4.2%) |
| | divorce | 21(7.9) | | 101~2million won | 60(21.1%) |
| | separation | 2(0.7) | | 2,01~3million won | 61(21.5%) |
| | separation by death | 5(1.9) | | 3,01~4million won | 90(31.7) |
| | single | 24(8.4) | | 5,01million won~ | 61(21.5%) |
| | missing | 18 | | missing | 1 |

우선 조사대상자의 연령분포는 30대(19.6%), 40대

(51.2%), 50대(29.4)로, 40대가 가장 많은 연령층으로 나타났다. 성별로는 남자가 40.6%, 여성이 59.4%로 여성이 조금 더 높은 비율을 보였다. 조사대상자의 학력은 대졸이 142명(50%)로 조사대상자 중 대학학위를 가지고 있는 경우가 절반인 것으로 나타났다. 그 외 고졸 37.3%, 대학원졸 4.2%로 나타났다. 결혼상태는 기혼이 215명(80%)으로 가장 많았으며, 이혼 21명(7.9%), 사별 5명(1.9%), 미혼인 경우도 24명(8.4%)이었다.

종교의 경우 기독교가 97명(34.6%)으로 가장 많았으며, 천주교39(13.9%), 불교 54(19.3%)로 나타났다. 월가수소득은 월300-400만원이 90명(31.7%)으로 가장 많았으며, 200-300만원 61명(21.5%), 100만원-200만원이 60명(21.1%), 500만원 이상이 61명(21.5%), 100만원 이하가 12명(4.2%)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3.2 주요변수의 특성

3.2.1 주요변수의 기술통계

본 연구 모형에 투입된 주요 변인은 내외통제, 생활만족 및 노후준비이다. 이들 변수에 관한 기술통계분석에 관한 결과를 아래의 <Table 2>에 제시하였다.

<Table 2> Characteristics and Distribution of variables

| variable | sample size | mean | SD | minimum | maximum |
|-------------------------|-------------|------|--------|---------|---------|
| the locus of control | 284 | .62 | .19929 | .08 | 1.00 |
| life satisfaction | 284 | 3.45 | .68110 | 1.00 | 4.69 |
| preparation for old age | 284 | 3.12 | .58170 | 2.00 | 4.89 |

조사대상자의 내외통제는 전체 평균 .62점(SD=.19929)으로 중간 수준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평균값이 .50 보다 높을 때는 조사대상자들의 내적통제성이 외적통제성 보다 더 높음을 의미한다.

생활만족의 경우 평균 3.45점(SD=.68110)으로 중간보다 높은 수준으로 나타났고, 노후준비의 경우에도 평균 3.12점(SD=.58170)으로 중간수준보다 약간 높게 나타났다.

3.2.2 상관관계 분석 및 다중공선성 검토

독립변수들간의 다중공선성은 상관관계 계수와 VIF 혹은 Tolerance값을 이용하여 살펴볼 수 있다. 그 기준은 상관계수가 .80이상이면 다중공선성을 고려해 봐야하며,

Tolerance는 1이하, VIF는 10이하인 경우 다중공선성이 있다고 볼 수 있다. 본 연구결과 상관관계 계수 상에서 독립변수간 상관관계 계수가 .80이상인 변수가 없으므로 이 조건을 만족하고 있다. tolerance값은 .801~.923의 범위였으며, VIF는 1.012~1.200로 다중공선성의 문제는 없었다.

결과적으로, 내외통제와 생활만족, 생활만족과 노후준비, 내외통제와 노후준비는 아래와 같이 각각 상관관계를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P<.01).

<Table 3> Correlation between variables

| variable | the locus of control | life satisfaction | preparation for old age |
|-------------------------|----------------------|-------------------|-------------------------|
| the locus of control | 1 | .388** | .249** |
| life satisfaction | .388** | 1 | .525** |
| preparation for old age | .249** | .525** | 1 |

**p<.01

3.2.3 생활만족 및 노후준비에 대한 영향요인의 회귀분석 결과

조사대상자의 생활만족 및 노후준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무엇이며, 그 영향력은 어떠한지 검증하기 위해, 내외통제를 주요 독립변인으로, 그리고 인구사회학적 변인 중 성별, 나이, 월평균소득, 학력 등을 투입하여 회귀분석을 통해 실시하였다. 그 결과는 아래의 <Table 4>, <Table 5>와 같다.

제시된 독립변인들로 구성된 생활만족의 회귀모형은 32%의 설명력을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독립변인별로 연구결과를 살펴보면, 주요 변인인 내외통제와 더불어 월평균 소득이 서로 같은 수준으로 중년기 성인의 생활만족에 정적관계를 갖는 강력한 영향요인으로 나타났다(p<.001). 좀 더 구체적으로 내용을 살펴보면, 인구사회학적 요인 중에서는 월평균 소득(p<.001), 연령(p<.05), 학력(p<.05)이 중년기 성인의 생활만족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월평균 소득이 높을수록, 연령이 높아질수록, 학력이 고학력일수록 생활만족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제시된 독립변인들로 구성된 노후준비의 회귀모형은 약 31%의 설명력을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독립변인별로 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주요 변인인 내외통제 성이 높을수록 중년기 성인의 노후준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p<.001). 인구사회학적 요인 중에서는 연령(p<.01), 월평균 소득(p<.001)이 중년기 성인의 노후준비에 유의미한 정적 관계를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연령이 높을수록, 월소득 수준이 높을 경우 노후준비도 상대적으로 높은 것을 의미한다. 반면, 성별, 학력 등은 노후준비에 대해 통계적으로 유의한 요인으로 나타나지 않았다.

<Table 4> Hierarchical multiple regression of life satisfaction

| variable | B | SE | β | t값 |
|-------------------------|-------|------|--------|----------|
| the locus of control | 1.295 | .184 | .374 | 7.048*** |
| sex | .094 | .077 | .066 | 1.224 |
| age | .130 | .050 | .158 | 2.627* |
| monthly income | .176 | .035 | .297 | 4.997*** |
| education | .090 | .043 | .112 | 2.084* |
| constant | 1.574 | .260 | | 6.058 |
| R | | | .575 | |
| R ² | | | .331 | |
| Adjusted R ² | | | .315 | |
| F | | | 20.681 | |

*p<.05, ***p<.001

<Table 5> Hierarchical multiple regression of preparation for old age

| variable | B | SE | β | t값 |
|-------------------------|-------|------|--------|----------|
| the locus of control | .676 | .150 | .234 | 4.498*** |
| sex | .029 | .064 | .024 | .446 |
| age | .136 | .042 | .196 | 3.263** |
| monthly income | .130 | .029 | .261 | 4.411*** |
| education | -.006 | .036 | -.008 | -.156 |
| constant | 2.197 | .266 | | 8.249 |
| R | | | .572 | |
| R ² | | | .327 | |
| Adjusted R ² | | | .311 | |
| F | | | 20.518 | |

p<.01, *p<.001

4. 논의 및 제언

본 연구는 다양한 심리적, 경제적인 난제로 위협을 받고 있는 고령사회의 중년기 성인들이 어떻게 현재 생활의 만족을 유지하며 노후준비라는 발달과업을 수행하고 있는가를 내적기제인 내외통제성을 통해 파악하고자 하였다. 이에 본 연구의 주요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의 조사대상자의 내외통제, 생활만족, 노

후준비 수준은 다음과 같다. 조사대상자의 내외통제는 전체 평균 .62점(SD=.19929)으로 내통제 수준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생활만족의 경우는 평균 3.45점(SD=.68110)으로 중간수준보다 높게 나타났다. 노후준비에 있어서도 평균 3.12점(SD=.58170)으로 중간수준보다 약간 높게 나타났다.

둘째, 본 연구에서는 내외통제가 중년기 성인의 생활만족에 정적관계를 갖는 강력한 영향요인으로 나타났다($p<.001$). 한편, 인구사회학적 요인 중에서는 월평균 소득($p<.001$), 연령($p<.05$), 학력($p<.05$)이 중년기 성인의 생활만족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월평균 소득이 높을수록 생활만족이 높았고, 연령도 높아질수록 더 높은 생활만족을 보였으며, 학력 또한 고학력일수록 생활만족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 가지 주목할 만한 결과는, 내통제성과 월평균 소득이 중년기 성인의 생활만족에 같은 수준의 높은 영향력을 가진 요인으로 제시되었다는 것이다($p<.001$).

셋째, 주요 변인인 내통제성이 높을수록 중년기 성인의 노후준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p<.001$). 인구사회학적 요인 중에서는 월평균 소득($p<.001$)과 연령($p<.01$)이 중년기 성인의 노후준비에 정적 관계로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즉, 월소득 수준이 높을수록 그리고 연령이 높을수록 노후준비도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성별, 학력 등은 노후준비에 대해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한편, 본 연구는 분명한 일반화를 위한 한계를 갖는다. 표집과정에서 연구대상자들을 일반대학원 1곳과 온라인 대학 1곳으로 한정하여 설문을 적용하였기 때문에 본 결과를 모든 중년기 성인에게 일반화하는데 한계가 있다. 이에 확률적 표집 방법을 사용하여 중년기 전체의 특성을 반영할 수 있는 대표성 있는 표본을 표집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는 중년기 성인의 생활만족과 노후준비에 대해 내외통제성 관점에서 구체적인 규명을 했다는 것에 의미가 있다고 보며, 이에 본 연구결과를 토대로 다음과 같은 실천적 제언은 제시하고자 한다. 첫째, 중년기 성인의 현실적 생활만족과 미래 노후준비에 기능적으로 작용하는 내외통제성과 같은 내적자원을 개발할 수 있는 다양한 실천적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즉, 외적자원의 가용 및 확대에 한계가 있을 경

우 내외통제성과 같은 내적자원을 통해 적응 수준을 높일 수 있으므로, 이러한 내적 자원을 다양한 차원에서 개발하고 강화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필요하다.

둘째, 중년기 성인의 생활만족 및 노후준비에 유용한 내적자원인 내외통제성을 강화할 수 있는 구체적인 개입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면 효과적인 문제해결적 접근은 개인적인 자기 통제감 증진에 기여할 수 있고, 대처기술향상훈련은 대인관계상 타인과의 관계에서 통제감을 증진시킬 수 있다. 이처럼 개인의 통제감을 향상시킬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셋째, 중년기 생활만족에는 학력과 월평균 소득이, 노후준비에는 월평균 소득이 유의미한 변인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저소득층과 저학력자들의 생활만족 및 노후준비에 국가는 더 각별한 민감성을 가지고 이들의 삶의 질 개선과 건강한 노후를 위한 다양한 지원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후속 연구를 위한 제언은 다음과 같다.

최근까지도 중년기성인의 내외통제성, 생활만족도, 노후준비 간의 관계가 경험적으로 검증된 연구가 적어서 이들 간의 관계를 통합적으로 설명하지 못하였다. 따라서 후속 연구에서는 세 개의 주요 변인들의 관계를 포괄적으로 다루는 통합된 이론 모형을 제시하고 그 검증된 모형을 바탕으로 중년기 성인의 내외통제성의 심리적 기제를 실증적으로 제시하는 시도가 요구된다.

REFERENCES

- [1] H. S. Jeon, M. Y. Kim, The Relationships of the Caregiving Awareness, Caregiving Appraisal for Middle-aged and Senescent Life Plans, Health and Social Welfare Review Vol. 32, No. 2. pp.206-231. 2012.
- [2] S. O. Choi, S. N. Kim, K. I. Shin, J.H. Lee, Anxiety about Aging of a Resident Community of Adult. Journal of the Korean Gerontological Society, Vol. 28, No. 1, pp.19-32. 2008.
- [3] J. S. Kim, S. Kang, Baby Boom Generation's Burden for Taking Care of Children, Aging Anxiety, Preparations for Old Age and Quality of Life, Journal of Korean Public Health Nursing, Vol. 26,

- No.3. pp.440-452. 2012.
- [4] Neugarten, B. L., Havighust, J. R., & Tobin, S. S. The measurement of life satisfaction. *Journal of Gerontology*, Vol. 16, No. 2. pp.315-326. 1961.
- [5] Jan, M., Masood, T. An Assessment of Life Satisfaction among Women. *Stud. Home Comm. Sci.*, Vol. 2, No. 1. pp.33-42. 2008.
- [6] Y. K. Chee, The Locus of Control, Perceptions of Stress in Retirement and Life Satisfaction among the Retirees, Master Degree Paper, Seoul: Ewha Womans University, 1990.
- [7] S. I. Burm, S. J. Moon, A Study on The Household Investment Planning According to Family Life Cycle, *Journal of the Korean Home Economics Association*, Vol.30, No.1. pp.199-217. 1992.
- [8] C. J. Park, Middle and Old Citizens, Economic Preparations for Aging, Determinants of Economic Preparation, *Korean Journal of Social Welfare*, Vol. 60, No.3. pp.275-297. 2008.
- [9] Phaises, E. J. Expectancy changes in skill and chance situations. *Journal of Abnormal and Social Psychology*, Vol. 54. pp. 339-342. 1957,
- [10] Rotter, J. B., Generalized Expectancies for Internal versus External Control of Reinforcement, *Psychological Monographs*. Vol. 80, No. 1. pp.1-28. 1966.
- [11] Bar-Tal, D., & Bar-Zohar, Y., The relationship between perception of locus of control and academic achievement: Review and some educational implications, *Contemporary Educational Psychology*, Vol. 2. pp.181-199. 1977.
- [12] Abramovitz, S. F. "Internal External Control and Social-Political Activism" *Journal of Consulting and Clinical Psychology*. Vol. 40, No. 2. pp.196-201. 1973.
- [13] Brissett, M and J. R. Nowicki. "Internal versus External of Reinforcement and Reaction of Frustration."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Vol. 25, No. 1. pp. 35-44. 1973.
- [14] Strickland, Bonnie R. The prediction of social action from a dimension of internal-external control. *Journal of Social Psychology*, Vol. 66. pp.353-358. 1965.
- [15] Nowicki, S., & Brissett, M. "Internal versus external of reinforcement and reaction of frustration".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Vol. 25. pp.35-44. 1977.
- [16] Shybut, T. "Internal versus External Control, Time Perspective and Delay of Gratification of High and Low Strength." *Journal of Clinical Psychology*. Vol. 26. pp. 430-431. 1970.
- [17] Mikulincer, M. and B. Nizan. "Causal Attribution, Cognitive Interference, and the Generalization of Learned Helplessnes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Vol. 55. pp. 470-478. 1988.
- [18] Pittman, N. L. and T. S. Pittman. "Effects of Amount of Helplessness Training and Internal-External Locus of Control on Mood and Performance."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Vol. 37. pp. 39-47. 1979.
- [19] Matthews, K. A. "Psychological Perspectives on the Type A Behavior Pattern." *Psychological Bulletin*. Vol. 91, No. 1. pp.293-323. 1982.
- [20] H. S. Jeon, The effects of the locus of control and Aging Anxiety on preparation for old age in middle-aged adults, *Journal of Digital Convergence*, Vol. 12, No.10. pp.571-576. 2014.
- [21] Y. S. Kim, K. R. Choi, The Effects of the Internal-External Locus of Control and Self-Esteem on the Psychological Well-being of Middle Aged Women, *Journal of family relations*, Vol. 11, No. 3. pp.173-199. 2006.
- [22] Havighurst, R. *Developmental Tasks and Education*, 3rd ed., New York : David Mckay. 1972.
- [23] Y. K. Chee, B. E. Cho, The Locus of Control, Perceptions of Stress in Retirement And Life Satisfaction Among the Retirees, *Journal of the Korean Home Economics Association*, Vol.29, No.2. pp. 217-240. 1991.
- [24] Jin. Yoon, "Life Satisfaction Inventory for the elderly", *The Korean Journal of Psychology*, Korean Psychological Association Annual Conference, pp.26-30. 1982.
- [25] S. S. Kim. A research on the attitudes of the

middle-aged toward support for aged parents and on plans for their senescent life, Master Degree Paper, South Chungcheong: Hanseo University, 2006.

이 희 연(Lee, Hee Youn)



- 2005년 2월 : 연세대 사회복지학과 (문학박사)
- 2008년 4월 ~ 현재 : 서울사이버대학교 사회복지학부 교수
- 관심분야 : 사회복지실천, 청소년복지, 여성복지, 빈곤문제, 이러닝 등
- E-Mail : imilhy@hanmail.net

전 혜 성(Jeon, Hye Seong)



- 2007년 2월 : 이화여자대학교 사회복지학과(문학박사)
- 2014년 3월 ~ 현재 : 단국대학교 행정법무대학원 교수
- 관심분야 : 정신보건, 가족상담, 여성, 생애발달, 온라인교육 등
- E-Mail : hsjeon@dankook.ac.kr